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6. 8. / (총 10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정 혜 은 장 태 영	전 화	044-202-3575 044-202-3576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김 정 숙 김 재 민		044-202-3155 044-202-3808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검사팀	팀 장 담 당 자	이 윤 신 한 정 훈		044-202-3560 044-202-34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지원반	팀 장 담 당 자	이 병 철 전 종 형		044-205-6511 044-205-65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검체채취 키트 수급 안정화 계획,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 및 홍보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검체채취 키트 수급 안정화 계획,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 및 홍보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최근 집단감염의 연쇄적 고리로 작용하는 사례들은 모두 방역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1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29.~6.14.)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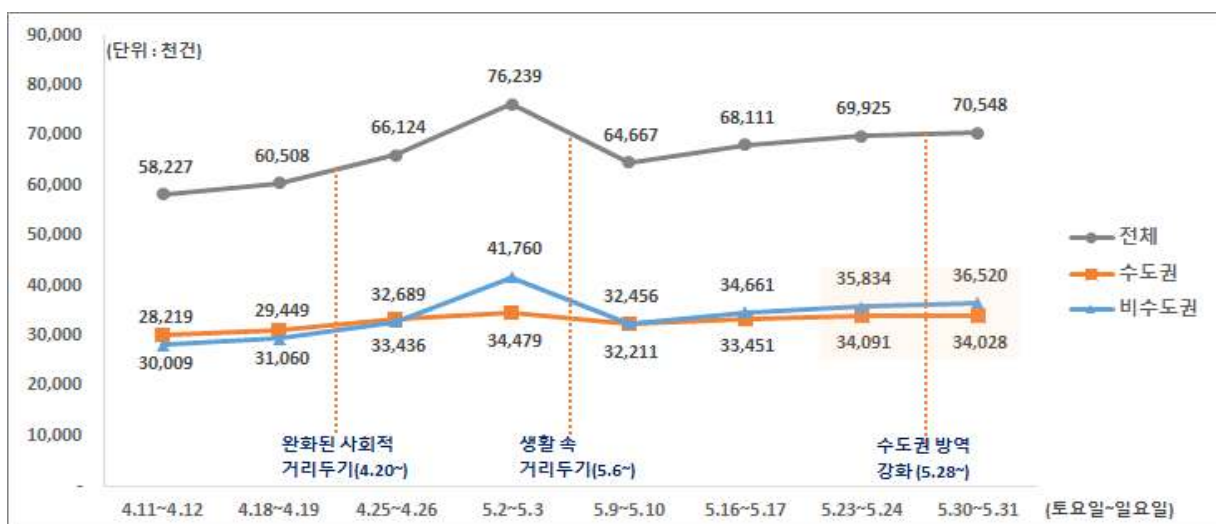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자료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건수	S이동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서울버스/지하철 이용객 수	서울시	-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처음 맞이한 주말(5.30. ~5.31.)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5.23.~5.24.) 대비 약 9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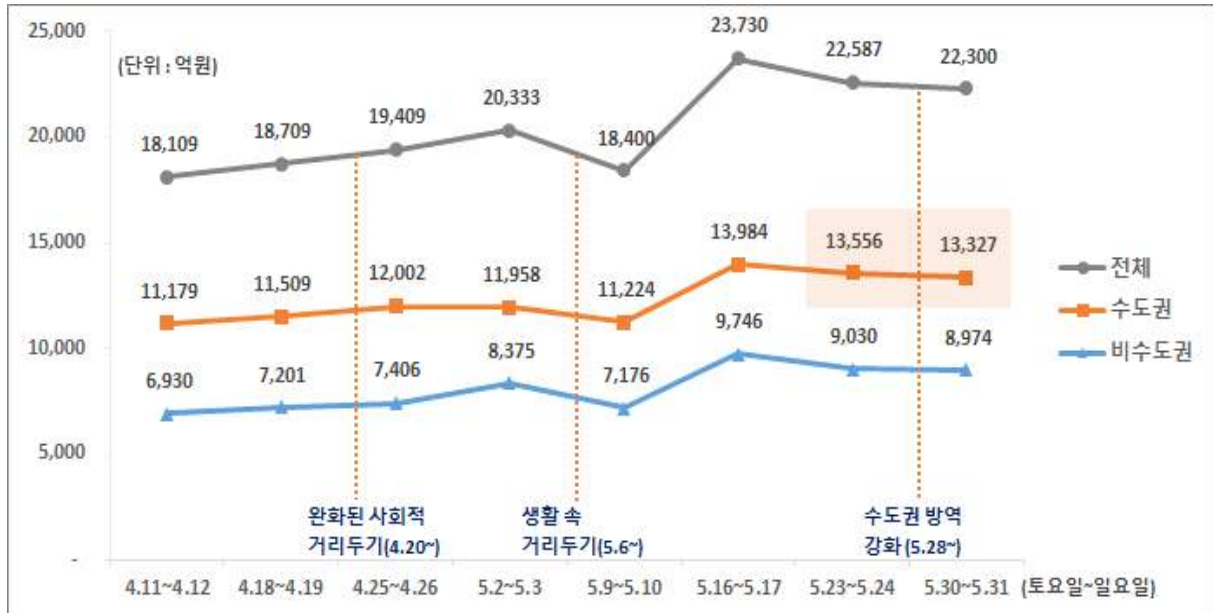
- ① (휴대폰 이동량) 방역강화 조치 후 첫 주말의 휴대폰 이동량은 그 전 주말 대비 0.2% 하락(약 6.3만 건 감소)하였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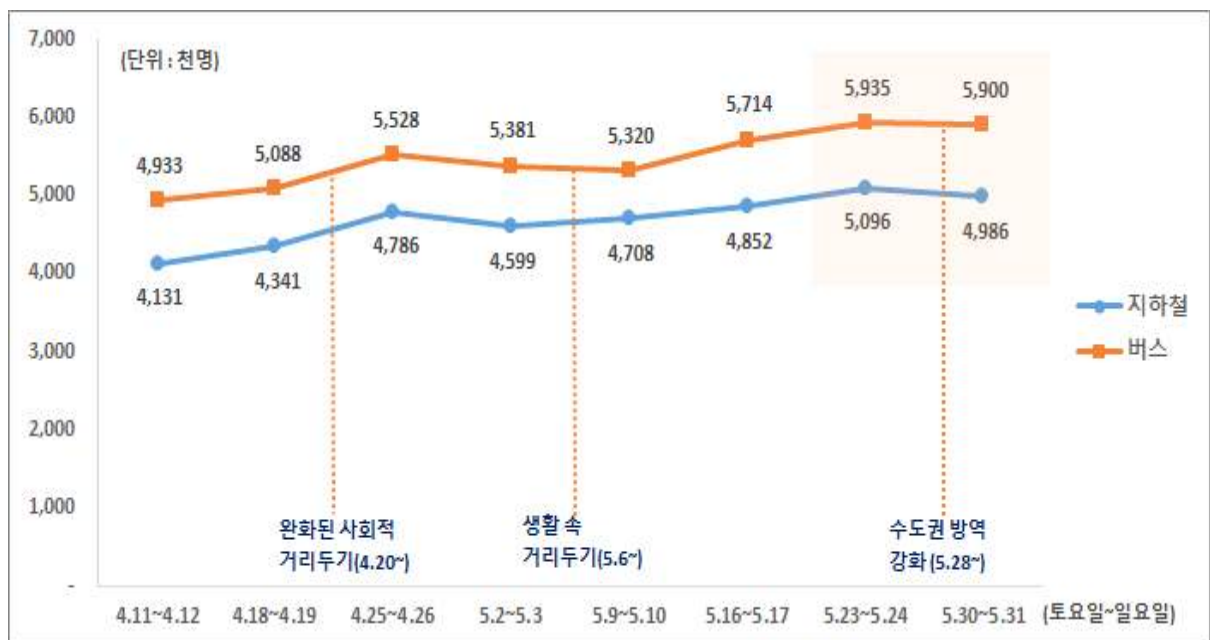
- ② (카드 매출) 방역강화 조치 후 첫 주말의 카드 매출액은 그 전 주말 대비 1.7% 하락(약 229억 원 감소)하였다.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 ③ (버스·지하철 이용량) 방역강화 조치 후 첫 주말의 서울지역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은 그 전 주말 대비 1.3% 하락(약 14.5만 명 감소)하였다.

< 서울 버스·지하철 주말(토·일) 이용객 수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 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 검체채취 도구(키트) 수급 안정화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검체채취 키트* 수급 안정화 계획을 논의하였다.
- * 「의료기기법」 상의 의료기기로 면봉과 수송배지로 구성, 구강·비강 등에서 체액·분비물 채취
- 현재 국내 검체채취 키트 일일 공급량은 약 3.4만 개 수준으로 최근 일일 수요량*을 충족하고 있으나
 - * 일일 평균 2.8만 건 검사(5.25일~5.31일/ 신규 확진자, 기존 확진자,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자 등 대상 중복검사 허용 건수 (검체, 검사자 기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생산업체 일시 폐쇄(Shut-down) 등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체채취 키트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정부는 국내 생산량과 수요량을 주1회 모니터링하여 키트 부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업체에 추가 생산 증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 보건소는 검사량이 폭증하더라도 키트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체채취 키트를 사전에 충분하게 비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 보건소는 2주간 사용 가능한 물량을 비축하고, 정부는 35만 개* 키트를 별도 비축하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 5만 개(일일 확진자 1,000명 발생, 확진율 2% 가정) × 7일

- 또한, 국내 주요 생산업체에 대해서 금주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검체채취 키트 생산업체는 방역에 필수적인 물품을 공급하는 만큼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이 매우 중요하므로 △근무자 마스크 착용, △작업장·식당·휴게장소 내 거리 두기, △장비·설비에 대한 소독 확인 등을 진행하여 집단감염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아울러 키트 생산업체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체채취 키트를 포함한 방역기기 R&D('20년~'22년, 연간 12억 원)를 추진 중이며,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운영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건소가 최소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비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번 검체채취 키트 수급 안정화 계획이 원활한 진단검사 수행에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 및 홍보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6월 7일(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 5,655개소 △유흥시설 3,512개소 등 41개 분야 총 16,306개 시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53건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였다.
- 광주시에서는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하였고, 대전시는 현충원 참배객 수송 차량 전담자를 지정하여 참배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5개반, 574명)으로 심야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3,701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1,046개소(28%)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4,228개소 중에서 출입자명부 미작성, 발열체크 미흡한 사례 6건이 발견(광주, 강원)되어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6월 7일(일) 오후 6시 기준, 3,251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었고 2,672명이 해제되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42,500명이다.
-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2.4% 설치되었다.
- 어제(6.7)는 무단이탈자 1명이 2차 진단검사 후 귀가하던 중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계도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08명이며, 이 중 83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5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79개소(2,51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69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6월 7일) 입소 153명, 퇴소 183명 / 의료진 등 근무인력 318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 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 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붙임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